

# 코로나 등 영향 '캠핑 열풍'에 매출 쾅쾅

광주지역 이마트 캠핑용품·용품 매출 30.7%·7.4% ↑

'솔로캠핑'·'불멍' 등 트렌드 다양...사계절 내내 '캠핑'

코로나19 장기화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캠핑 열풍으로 인한 관련 용품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7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캠핑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이 봄비는 여행지 대신 혼자 또는 가족끼리만 소규모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선호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이마트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1인 가구의 소비영역 또한 캠핑영역으로 확대돼 '솔로캠핑'이 주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솔로캠핑은 미니멀 라이프를 캠핑으로 연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비만 챙기는 것이 특징으로, 도시에서 벗어나 홀로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1인 가구들에게 최근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10월1-4일 텐트 등 캠핑용품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 신장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차를 이용한 '오토캠핑' 형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늘면서 휴대 및 수납이 용이한 간편한 캠핑 용품이 인기를 끈 것이 매출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과거에는 여름 바캉스철이 캠핑의 주력 시즌이었으나 캠핑 인구가 늘면서 이제는 사계절 모두 캠

핑 시즌이 된 것도 매출 상승의 요인으로 꼽혔다. 그 중에서도 야외에서 화로, 장작을 멩하니 쳐다보며 생각에 빠지는 '불멍' 캠핑이 이색 캠핑으로 인기를 끌며 캠핑용품 수요를 더하고 있다.

캠핑용품 중 침낭(15%), 매트리스(12%) 등 텐트 내 방한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조리 취사용품은 26%, 숟/그릴은 48%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이마트는 북미 아웃도어 브랜드인 '스탠리(STANLEY)'의 대표 상품 워터저그와 아이스박스를 직수입해 지난해보다 물량을 2.5배 늘려 준비했다.

워터저그는 얼음을 60시간 유지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으로, 캠핑족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상품이다.

이마트는 단독으로 기존 제품의 어두운 색상에서 벗어난 밝은 색상 계열의 폴라블루, 피치웍, 샌드베이지 색상을 추가로 기획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사계절 캠핑시대를 맞아 가을·겨울 캠핑을 위한 캠핑용품 할인전을 진행한다"며 "가을, 겨울의 경우 봄, 여름보다 캠핑 장비가 많이 필요한 만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캠핑 열풍에 관련 용품 수요도 늘고 있다. 7일 오전 이마트 광주점 캠핑용품 코너를 방문한 고객 이 제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마트 광주점 제공)

## “아이 옷 사고, 유니세프 기부도 하고”

이마트 패션브랜드 데이즈, '핏 포 칠드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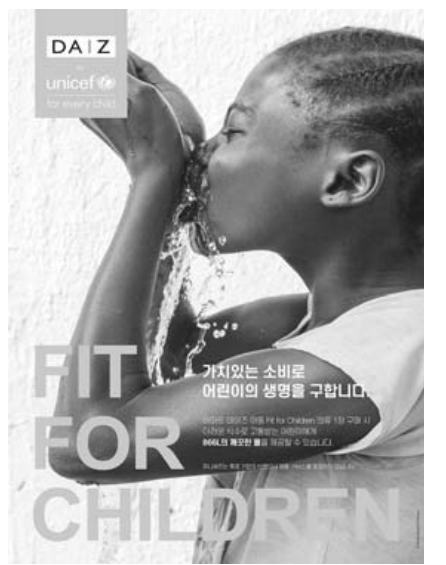
이마트 자체 패션 브랜드 데이즈가 상품 판매 수익금을 어린이 식수 개선 사업에 지원한다.

7일 이마트에 따르면 데이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핏 포 칠드런(Fit for Children)' 캠페인을 열고 가을·겨울과 봄·여름 시즌 '데이즈 KIDS' 아동의류 판매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상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기부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아동 의류 상품을 구매하면 유니세프 그림책을 받을 수 있다. 그림책 하나당 약 1천원 가량을 책정해 유니세프에 아동 기부하는 방식이다. 확보한 기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식수정화제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다.

1천원이면 식수정화제 216-217정을 구매할 수 있다. 식수정화제 1정당 물 4ℓ를 정화할 수 있어 의류 1벌을 구매할 때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 866ℓ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데이즈는 의류 태그에 별도 QR코드



를 삽입해 홈페이지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니세프 홈페이지 기부페이지를 방문하면 추가 기부도 진행할 수 있다. 오는 13일까지는 데이즈 아동의류 10종을 30% 할인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양시원기자

## ‘갤럭시 Z 폴드3·플립3’ 국내 100만대 돌파

출시 39일만...역대 3번째 기록

삼성전자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의 국내 판매량이 정식 출시 39일만인 지난 4일 기준 100만대를 돌파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매출 실적은 바(Bar) 타입의 스마트폰을 모두 포함해도 ‘갤럭시 노트10’, ‘갤럭시 S8’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특히 ‘갤럭시 Z 플립3’의 판매 비중이 약 70%로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갤럭시 Z 폴드3’는 전작 대비 4배 커진 전면 디스플레이로 사용성을 극대화하고 크립, 라벤더, 핑크 등 7가지 색상 모델로 출시돼 2030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구매 고객의 약 54%가 MZ세대 소비자로 분석됐다.

전체 판매량 중 자급제 비중이 약 20%



였으며 자급제 판매 가운데 온라인 판매 비중은 약 58%로 집계됐다.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는 사전 예약자 대상 개통 첫 날에만 27만대가 개통되며 국내 스마트폰 개통 첫날 기록을 새로 썼다. 앞서 진행된 사전 예약에는 약 92만명이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시장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요로 인해 사전 개통 기간을 처음으로 2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기수희기자

## 유통·금융업계 ‘백신 인센티브’ 속속

롯데백 광주점, 접종 완료자 대상 상품권 증정

광주은행도 우대금리 적용 ‘저금통 적금’ 출시

유통 및 금융업계가 위드 코로나에 앞서 ‘백신 인센티브’를 잇따라 적용, 눈길

이 쏠리고 있다.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오는 11-17일 2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식당·식료품·F&B매장에서 당일 5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5천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해당 행사는 롯데백화점 앱에서 쿠폰을 다운받은 고객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운받은 쿠폰과 백신 접종 확인서, 구매 영수증을 9층 사은행사장에 제시하면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광주은행도 최근 백신 접종자에게 추가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

을 출시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28일 최근 금융 트렌드로 떠오르는 ‘짤테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더해 코로나 백신 접종 고

객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는 ‘저금통 적금’을 선보였다.

‘저금통적금’은 1만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연 0.2%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대금리 이벤트는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며 상품 가입은 영업점 방문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신규 가입 시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예방 접종 스티커의 상세 정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편의점 5천원 이상 도시락 ‘날개’

편의점에서 5천원 이상의 ‘고가’ 도시락 판매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GS25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판매가 5천원 이상인 도시락 매출 비중은 전체의 22.5%로 집계됐다. 2018년 3분기 7.5%와 비교하면 3년 새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한 끼 때우기’ 용도보다 ‘제대로 된 한 끼를 즐기’ 위한 ‘도시락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6가지 이상의 반찬이 들어있는 가정식 도시락을 지칭하는 ‘정찬식 도시락’ 매출 비중은 2018년 3분기 53.5%에서 지난 3분기 88%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명품업계 ‘자전거’ 잇단 출시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자전거 제조업체와 협업해 고가 자전거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야외 활동 수요가 커진 가운데 친환경 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는 자전거로 상품군을 늘리는 모양새다.

7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레르도 덴마크 자전거 제조사 ‘메이트바이크’(MATEBIKE)와 손잡고 접이식 자전거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8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4가지 색상으로 나온 이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3천445만원이다.

패션 브랜드 MCM 역시 이달 초 독일 자전거 브랜드 ‘어반’(URWAHN)과 손잡고 전기 자전거를 내놨다. MCM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하며 가격은 1천만원이 넘는다.

패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 몽클레르도 덴마크 자전거 제조사 ‘메이트바이크’(MATEBIKE)와 손잡고 접이식 자전거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www.e-dk.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